

# 현안과 과제

- 저소득층 여름철 체감물가 높다
  - 장마철 물가 관리 필요



## 1. 개요

- 여름철 장마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높음
  - 국내 물가는 2012년부터 상승세가 둔화되어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
    -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월~6월 평균 1.2%로 1%대에 머무름. 장기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1%대의 안정적인 기조
    -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  - 하지만 장마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호우, 태풍 등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류를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
    - 우리나라는 6~9월 기간 동안의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9.9%를 차지하는 등 여름철 강수량이 많고, 집중 호우로 오는 경우가 많음
    -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지난해 “볼라벤”과 같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<sup>1)</sup>
    - 여름 장마철 기간의 호우와 장마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작황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<sup>2)</sup>
  - 여름철 장마는 신선식품 등 식탁물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의 체감물가를 크게 자극함
    - 체감물가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물가인 소비자물가와 달리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로서,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사람마다 소비하는 품목이 다르고 구입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
    - 식료품 등 소비자들이 접하는 빈도가 높은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를 경우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높임
- 본 보고서에서는 여름철 물가의 특성을 살펴보고, 계층별로 체감물가를 산출하여 여름철 물가 상승이 어떤 계층에 특히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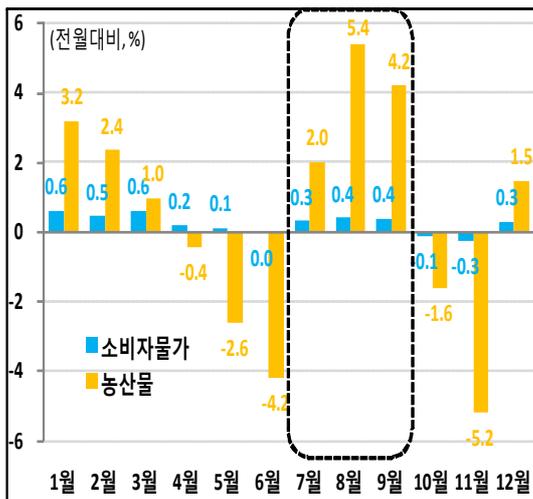
1) 3개월(2013년7~9월), 1개월(7월상순~하순) 전망, 기상청(2013. 6. 24)

2)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4차례(6월 25~26일, 7월 9~10일, 7월26~28일, 8월 6~10일), 2012년 2차례(2012년 7월 5~6일, 8월 25~30일) 태풍과 많은 비로 농작물 등에 큰 피해가 발생

## 2. 여름철 물가 불안

-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류 등 농산물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음
  - 7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,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
    - 농산물 물가는 1월부터 6월까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,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가격이 급등하여 9월까지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특성을 보임
    - 소비자물가 역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월부터 상승률이 높아지며 물가 불안이 9월까지 지속
  - 특히,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류의 물가 상승이 전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
    - 2003~12년 동안의 채소의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6월 -9.8%에서 7월 6.6%에 이어 8월에 13.3%, 9월에 14.7%로 급등
    - 채소류 중 전월대비 월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배추(7월 30.4%, 8월 47.1%), 상추(7월 50.7%, 8월 21.9%), 시금치(7월 44.7%, 8월 40.6%), 무(7월 17.2%, 8월 34.4%) 등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

< 최근 10년간 월별 물가 변동 >



자료 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
- 주 1)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대비 상승률을 사용
- 2)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< 최근 10년간 농산물 물가 상승률 >

(단위 : 전월대비, %)

	6월	7월	8월	9월
농산물	-4.2	2.0	5.4	4.2
곡물	0.1	0.0	0.1	0.1
채소	-9.8	6.6	13.3	14.7
과실	-3.9	1.0	3.1	-0.2
기타 농산물	-1.7	-0.7	1.7	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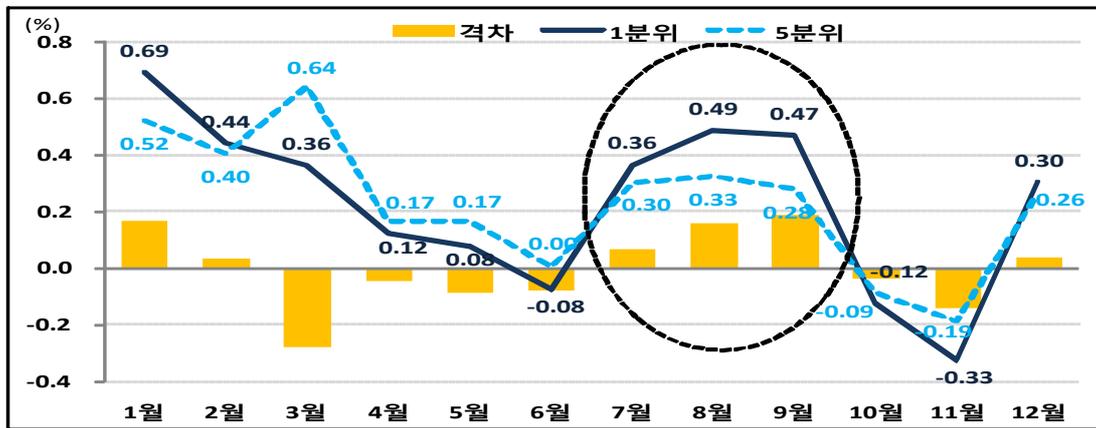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
- 주 1)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대비 상승률을 사용
- 2)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○ 여름철 농산물 물가 불안은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

-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여름철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
  -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는 장마와 홍수 등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월, 8월, 9월에 크게 높음
  - 저소득층의 여름철 체감물가는 6월에 전월대비 0.08%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7월부터 0.36%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8월 0.49%, 9월 0.47% 상승
  - 고소득층 역시 여름철 체감물가는 전월대비 6월 0.0%, 7월 0.30%, 8월 0.33%, 9월 0.28% 상승하여 7월부터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만, 상승폭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음

< 소득 1분위와 5분위 월별 체감물가 추이 (2003~2012) >



자료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
 주 : 물가의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월대비를 사용, 2003~2012년 물가 상승률 평균

< 체감물가지수 산정방식 >

- 체감물가 정의 : 체감물가란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로서, 소비자가 소비하는 품목과 구입하는 양에 따라 차이 발생
- 산정방식 : 각 소득계층이 직면하는 체감물가를 산정하기 위해, 소득계층의 항목별 소비지출구성과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중 평균하여 계산

<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산정방식 >

$$CPI_{\text{소득분위}} = \sum_{i=1}^n CPI_i \times \frac{q_{i,t} p_{i,t}}{\sum_{i=1}^n q_{i,t} p_{i,t}}$$

$q_{i,t}$  = 기준시점 t에서의 품목 i의 소비수량  
 $n$  = 12가지 소비지출품목 : 식료품, 주류·담배, 의복·신발, 주거 및 수도·광열, 가구·가사용품, 보건의료, 교통, 통신, 교양·오락, 교육, 외식·숙박, 기타

○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7~9월 체감물가가 높음

-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특성상 여름철 농산물 가격 불안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
  -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비중은 19.5%로서 전체 가구의 13.6%보다 5.9%p, 고소득 가구의 11.7%보다 7.8%p 높음
  - 주거·수도·광열비의 비중은 30.0%로서 전체 가구의 16.8%보다 13.2%p, 고소득 가구의 13.2%보다 16.8%p 높음
  - 보건비의 지출비중은 12.5%로서 전체 가구의 7.3%보다 5.2%p, 고소득 가구의 6.7%보다 5.8%p 높음
-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체감물가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
  - 고소득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4.7%로서 전체 가구의 11.4%보다 2.7%p, 저소득 가구의 3.1%보다 11.6%p 높음
  - 교통비 지출 비중은 12.4%로서 전체 가구의 10.9%보다 1.5%p, 저소득 가구의 6.2%보다 6.2%p 높음
  - 음식·숙박의 지출 비중은 12.5%로서 전체 가구의 12.0%보다 0.5%p, 저소득 가구의 7.2%보다 5.3%p 높음

< 계층별 소비품목 지출비중 >

(단위 : %)

	식 료품	주류 담배	의류 신발	주거 수도	가정 용품	보건	교통	통신	오락 문화	교육	음식 숙박
전체	13.6	1.2	6.2	16.8	3.8	7.3	10.9	5.8	5.3	11.4	12.0
1분위	19.5	1.6	4.1	30.0	3.3	12.5	6.2	5.1	4.0	3.1	7.2
5분위	11.7	0.9	7.3	13.2	4.6	6.7	12.4	5.1	6.2	14.7	12.5

자료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

주 1) 2010년 1인이상 전국가구 기준

2) 소비지출액의 가중치 모집단=소비지출액+전월세 평가액-경조비-회비-종교관계비

### 3. 시사점

- 여름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큰 폭으로 전이되어,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짐
  - 여름철 물가 상승은 농산물 등 필수품의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어 식료품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큼
  -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증가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짐
- 여름철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이 요구됨
  - 여름 강수량에 민감한 농산물은 수확량 변동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및 인플레이션 대응력의 신속성 확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
    - 강수 등 기상재해에 강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배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
    - 신선식품에 대한 저장 및 보관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  - 신선식품에 대한 해외 공급원을 확보하여 기상재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응력 마련
    - 서민 가계 지출 비중이 큰 농산물 등 식료품 관련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추가 도입 고려
  -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,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
    - 농산물 유통의 3대과제인 높은 유통비용, 큰 가격변동성, 산지-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문제 해결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
  - 농산물 적정 공급량의 사전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화
    -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량을 예측하여 냉동 및 저온 창고, 해외 집단 재배 단지를 이용하여 수급 조절
    - ‘파머스마켓(Farmer’s market)’과 같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공급. 지자체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위한 장소를 제공

김천구 선임연구원 (ck1009@hri.co.kr, 02-2072-6211)